

보도 일시	2023. 1. 20.(금) 09:00	배포 일시	2023. 1. 20.(금) 07:00
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

담당 부서 <총괄>	대외경제국 대외경제총괄과	책임자	과 장 이보인 (044-215-7610)
		담당자	사무관 염철민 (yum7157@korea.kr)
<협조>	국고국 국채과	책임자	과 장 장보현 (044-215-5130)
		담당자	사무관 안경우 (gomee@korea.kr)

## 추경호 부총리 對한국 투자 유치활동 전개 - 해외 투자기관 대상 한국경제 설명 및 유로클리어 CEO 면담 실시 -

-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‘23.1.17-19일 ‘23년 다보스포럼(세계 경제포럼 연차총회) 참석 계기에, 다보스에 모인 주요 해외 투자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와 세계 최대의 국제예약결제기구인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의 면담 등을 통해 對한국 투자 유치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.

### 【 1. 한국경제 설명 특별 세션 개최 】

- 추경호 부총리는 1.19(목) 8시(현지시간) Congress Center(다보스포럼 행사장)에서 WEF와 공동으로 한국경제 설명 특별세션(Economic Outlook on the Republic of Korea)을 개최하여 해외 금융투자자\*들을 대상으로 한국경제 상황 및 경제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.

\* WEF의 다보스포럼 웹페이지를 통해 등록한 10여명의 유럽 및 중동 투자자 참석

-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 성장둔화 등 올해도 대외여건의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세계 9위 외환보유액, 역대 최고수준의 국가신용등급, 경상수지 흑자 지속 전망\* 등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은 견고하며 대응여력도 충분함을 강조하였다.

\* '22년 250억불 흑자 추정, '23년은 200억불대 흑자 전망

- 또한 한국경제가 당면위기 극복 및 경제 재도약을 위해 ①거시경제 리스크 관리, ②민간·시장 주도 경제로 전환, ③한국경제의 근본적인 체질개선과 미래대비 등을 중심으로 경제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였다.
- 특히 추 부총리는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글로벌 금융투자자인 점을 감안, 외국인 주식투자자 등록의무 폐지, 외환시장 개장시간 연장, 외환거래 규제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신외환법 추진, 세계국채지수(WGBI) 신속 편입 추진 등
  - 올해부터 보다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 자본시장 투자환경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하였다.
- 추 부총리는 한국경제가 위기극복에 있어 특별한 DNA를 갖고 있어 '97년 외환위기, '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등에서도 위기극복의 모범국가로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바 있다고 하면서
  - 한국경제가 현재의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.
- 참석자들은 한국경제에 높은 관심을 보이면서 ①한-UAE 정상회담 이후 금융·투자분야 등 양국간 협력사업 발전전망, ②저출산·고령화에 대응한 한국정부의 정책대응 및 보험 등 관련산업 전망, ③미국·일본 등 통화정책 변화에 따른 외환시장 전망 등에 대해 질문하였으며,
  - 추 부총리는 금번 한-UAE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UAE 국부펀드 등을 통한 한국의 전략적 부문에 대한 300억불 투자공약이 매우 큰 의미가 있음을 강조하면서, 양국 정부는 물론 민간·공공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 성과가 조기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.
  - 또한, 외국인력 유입을 통한 인력규모 확충, 노동 및 교육 개혁을 통한 생산성 제고 등 한국정부의 다양한 고령화 대책을 소개하는 한편, 고령화 여건에 대응한 글로벌 보험사의 한국내 상품·투자 확대를 요청하였다.
  - 끝으로 외환시장에 대해서는, 미국 등의 통화긴축 강화로 지난해 하반기 다소 불안했던 원/달러 환율이 최근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, 정부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, 일본·중국 등 주변국의 외환시장 움직임 등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하였다.

## 【 2. 유로클리어 그룹 CEO 면담 】

- 추 부총리는 1.19일(금) 9시(현지시간), 다보스 Congress Center에서 리브 모스트리(Lieve Mostrey) 유로클리어 그룹 CEO와 양자면담을 실시하였다.
  - \* 유로클리어는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구(ICSD)로 작년 12월 한국예탁결제원과 국채 통합계좌 운영을 위한 MOU를 체결하고, 현재 서비스 개시를 위한 사전작업 진행중
- 추 부총리는 면담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과 한국의 세계국채지수(WGBI) 편입 계획을 소개하였다.
  - 특히, 향후 한국이 세계국채지수(WGBI)에 편입될 경우, 많은 외국인 국채 투자 자금의 유입이 예상되므로
    - \* 한국 WGBI 편입시,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 50~60조원 유입 전망('20, 금융연)
  - WGBI 편입에 앞서 신속히 국채통합계좌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그룹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.
- 리브 모스트리 CEO는 최근 한국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높이 평가하며, 향후 글로벌 투자자들이 유로클리어를 통해 한국 시장에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로클리어 그룹 전체 차원에서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.
  - 또한, 세부 기술적인 사항에 있어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, 그 과정에서 한국 정부 및 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
- 추 부총리는 한국 국채시장에 대한 유로클리어 그룹차원의 높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, 향후 긴밀하고 조속한 협력을 통해 올해가 한국 국채시장과 유로클리어 그룹 모두에게 의미있는 한해가 되기를 바란다고 화답하였다.